

오케스트라 만난 화려한 재즈에 빠지다

재즈 싱어송라이터 웅산
2월 15일 예술의전당서 공연
50인조 오케스트라와 협연
클래식 탱고 등 장르 넘나드는 공연

불자 재즈 싱어송라이터 웅산이 50인조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선보인다.

최근 6집 앨범 'Tomorrow'와 2집 기프트 앨범 'Once I Loved'를 동시 발매한 웅산은 2월 15일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2012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웅산의 러브스토리'를 통해 그녀만의 웅장한 스타일과 그루브가 느껴지는 재즈를 선사할 계획이다.

자신만의 독특한 쿨블루스재즈 장르를 개척한 웅산은 이번 공연에서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한 따뜻한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50인조 오케스트라가 협연해 웅장한 스케일과 화려함을 더해 예정이다. 다양한 게스트가 참여해 공연의 흥을 돋운다. 아코디언 연주가 라벤타나의 정태호, 색소폰연주가 장효석이 게스트 연주자로 참여하며, 서울의 대부로 알려진 바비킴이 게스트 보컬로 참여해 웅산과 'Baby come to me'를 함께 열창하며 무대를 장식하게 된다.

웅산은 이번 재즈 콘서트를 6집 정규앨범에 수록한 'The Boulevard of Broken Dreams' 등 그녀의 현란한 스킷을 느낄 수 있는 곡들을 중심으로 그녀의 색깔로 편곡해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에서는 스탠다드 재즈뿐만 아니라 아코디언 연주가 정태호가 탱고음악과 클



웅산은 그녀의 현란한 스킷을 느낄 수 있는 곡들을 중심으로 그녀의 색깔을 편곡해 선보일 예정이다.

래식이 만나는 고급스럽고 로맨틱한 선율의 음악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오앤미디어는 "클래식과 칸초네 라틴, 탱고 팝과 펑크 블루스와 재즈를 오가는 그야말로 모든 장르를 망라한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의 숨겨진 진면모를 모두 보여줄 최고의 공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웅산은 수려한 외모와 중저음의 능숙한 보이소로 객석을 압도하는 보컬리스트로 주목받고 있다. 재즈보컬리스트뿐만 아니라, 싱어송라이터, 뮤지컬 배우, 음악 프로듀서, 방송 진행 MC로 전방위적으로 종합 무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73년 부산에서 태어난 웅산은 고교시절 출가수행을 했다. 지금 쓰고 있는 그의 예명은 행자시절 당시 그의 별명이다. 환속한 이후 그는 상지대에 진학, 보컬로 음악을 시작했다. 1996년 재즈보컬리스트로 데뷔해 98년부터 일본 활동을 시작했다. 2000년 한·미·일 재즈페스티벌 참가를 시작으로 국제 무대에 올랐고, 2004년 앨범 1집(러브 레터)은 한일 동시발매로 내놓고 5집(Close your Eyes)을 발매했다. 2008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음반상 및 노래상을 동시 수상했고, 2010년에 일본에서 <스윙저널>의 골디스크상을 수상했다. 중부대학교 단국대 음

악과 보컬교수를 거쳐 현재 경희대 포스트모던과 보컬교수로 있다.

웅산은 2009년 12월 5집 앨범 'Close your Eyes'로 한국인 최초로 일본 스윙저널 골디스크를 수상, 2010년은 일본에서 발매된 2집 'Once I Loved'를 통해 일본 재즈 비평 '제5회 재즈오디디스크대상' 보컬 부문 금상을 수상했으며, 최근 동시 발매한 6집 'Tomorrow' 역시 웅산의 자작곡을 통해 팬들과 평단 사이의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웅산은 최근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의 제5차 여성불자 108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연문의 1588-4430

이내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한국의 선시각상 조선 허정법종 선사 '설안화상을 추모하며 차운함(追次雪相和尚韻)'

다 날라가 버렸네

我師師道徹玄微 (아사사도철현미)
得座披衣衆所歸 (득좌피의중소귀)
講揚淒涼花藉藉 (강양처량화자자)
禪窓虛靜月依依 (선창허정월의의)
千嶽山色看如怨 (천악산색간여원)
萬壑溪聲聽似悲 (만학계성청사비)
惘悵溟濶高擧後 (추장명령고거후)
人龍僧鳳盡潛飛 (인룡승봉진잠비)

우리스님 사범이 현묘함을 다하여
자리 얻어 옷 걸치니 대중 귀의하네.
강하던 경상 쓸쓸한데 꽃은 어지럽고
선하던 창가 고요한데 달은 희미하다.
전 바위산색 한스러워하는 듯 보이고
은 골짜기소리 슬퍼하는 듯 들리네.
슬프다. 드넓은 날개 높이 든 뒤
인용과 승봉 다 몰래 날아가 버렸네.

조선 허정법종(虛靜法宗; 1670~1733) 스님은 12세에 출가, 도안 스님에게서 모든 장경을 섭렵하고 도안 스님의 수제자였던 설암 스님에게 현지를 듣고 인가받았다. 스님은 "굳은돌처럼 뜻을 지키고 맑은 얼음처럼 정신을 모아 비고 고요함을 잘 지켜 물이 맑아지듯 하리"라고 자신의 호인 '허정(虛靜)'처럼 살기를 희망했다.

스님의 시집 곳곳에는 설암 스님을 추도하거나 차운한 시가 실려 있어 무시로 스님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 구에서는 도안 스님에게서 전수받은 스승의 도가 현묘하고 미묘하여 모든 대중이 그 법에 귀의했다고 소개했다. 스승의 부재(不在)로 인해 달빛도 밝음을 잃고 흐드러진 꽃도 무상하다. 보고 들리는 산색과 계곡물 소리조차 슬프게만 보이는 스님의 심경은 슬픔과 그리움이 점점 극대화되고 있음이다. 크나큰 법을 베풀며 언제까지나 제자 곁에 머물리라

는 기대감을 저버리고 홀연히 떠난 황망함을 '잠비(潛飛)'로 은근히 나타내었다. 스승에 대하여 세간과 출세간을 통틀어 용이요, 봉새였다고 확인하는 큰 믿음과 존경심을 가진 제자는 이미 스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한편에 허정(虛靜)이라는 시어가 가져다주는 효과이기도 하다.

승속을 막론하고 때로 참스승을 잃어버린, 청안(靑眼) 제자를 상실한 시대라고 개탄하고 있는 현실에, 특히 교회의 큰 종장인 비구·비구니 원로스님들께서 원적(圓寂)하시는 슬픔을 감당해 내야 하는 요즘에 있어서 스승됨과 제자됨의 도리를 돌아보고 일깨우는 시가 아닌가 한다.



원법 스님(운문사 종장·조계종 교수이사리)

조계종 문화부, 불교문화행사 보조금 지원

신작찬불가 노랫말도 공모...조계종 홈페이지 참조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진명)는 종단 소속 사찰과 불교문화단체를 대상으로 '2012년 불교문화행사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공모를 시행한다.

공모대상은 2012년 4~12월 진행하는 불교문화행사 가운데 >불교문화행사로 자부담 50% 이상의 사업 >산사에서 진행되는 사찰문화행사 >젊은층(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문화행사 >지역특성을 고려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연계된 행사 >다문화 행사 또는 외국인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 >이웃 종교와 함께 하는 문화행사에 한한다.

2월 15일까지 총무원 문화부에서 접수를 받으며 신청 공문과 함께 불교문화행사 국고보조금 신청서 1부를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받

아 제출하면 된다. 한편 문화부는 찬불가 창작·보급을 위한 2012 신작찬불가 노랫말을 공모한다. 노랫말의 주제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하며 경전을 근거로 핵심구절을 쉽게 풀어서 표현해야 한다. 또한 노랫말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고 한문이 없는 쉬운말로 표현되어야 하며 직접적인 불교용어(보살님, 부처님 등)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불교사상과 가르침을 표현해야 한다.

마감은 2월 24일까지이며 이메일(yungchang@buddhism.or.kr)·우편·팩스(02-722-3606)로 접수 가능하다. 노랫말이 채택된 자에게는 작사비용 20만 원이 주어진다. (02)2011-1770

이내나 기자



임현자 씨 작품

단국대 도예연구소, 차 도구展

인사동 공예갤러리서 2월 14일까지

현대 생활 속에서 차(茶)의 확산과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차도구들이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단국대 부설 도예연구소(소장 박중훈)는 2월 8~14일 인사동 공예갤러리 나눔에서 다양한 차 도구를 선보이는 전시회를 연다.

2004년부터 찾그릇과 차 도구 제작에 관심을 가져온 단국대 부설 도예연구소는 찾그릇으로서 사발 다관 찻잔 등 차도구의 기

능과 미적인 추구를 위해 꾸준한 관심과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여 회원들이 출품한 다양한 차도구들이 선보인다. 8일 2시 단국대 미술관 321호에서는 차도구 제작에 관한 학술세미나 진행도 개최한다.

박중훈 소장은 "단국대 도예연구소는 전통도자기와 현대도자기 전반에 관한 학문적 이론정립과 실질적인 표현방법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한국도자예술을 발전시키고 도자문화 및 연구활동을 진척하고 우리 도자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단국대 부설 도예연구소는 2012년도 1학기 도예전문교육과정생을 모집한다. 도자에 대한 기초이론 및 물레형성 등 종합적인 도자교육을 비롯해 차 도구 제작하는 연구과정과 도자 명인과정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접수기간은 2월 24일까지이며 개강일은 3월 5일 부터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dankookceec.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예갤러리 나눔 (02)723-5324

이내나 기자

창사 19주년 기념

마하연투어 (주)에스큐 성지순례

미안마

3월 출발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 1,290,000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 요금문의

* 특급(세도나 또는 동급)호텔, 업그레이드 식사, 비자 포함
*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 포함 / 유류할증료 불포함

인도 완벽 8대성지 9일 / 10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전통불교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 ~ 6일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징: 기법과 설치 용이

원터치 그리움 (인등) 소원성취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불제캐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정품)

- 방생, 탐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 LED전구, DC 9V 백색, 노랑, 빨강

청사초롱 및 초롱 곁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공당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